

박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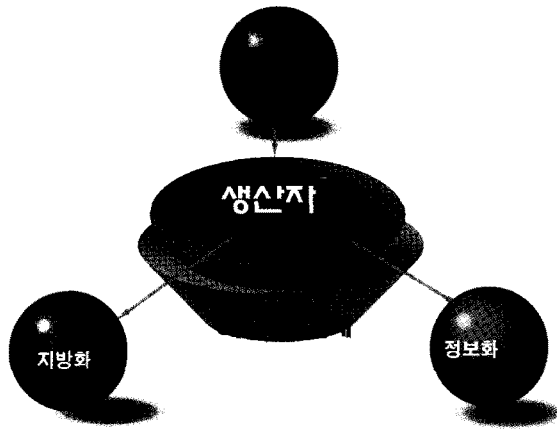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조경수 생산과 문제점

1. 생산자와 정보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지도자의 비전이 국가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 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조경수는 앞으로 다가올 국제시장개방에 따른 급변하는 국내의 조경수종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자생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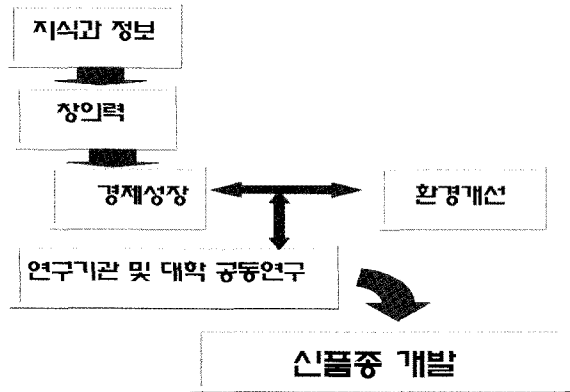
또한 시장 개방에 따른 품종을 도입 할 때는 로열티를 지불함에 따라 자생조경수에 대한 연구와 품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정보가 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정보를 빠르게 교환하여 각 지자체에서 직접 세계적으로 가는 조경수를 생산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다. 앞으로 생산자는 더 빨리 계획성 있게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2. 조경수의 공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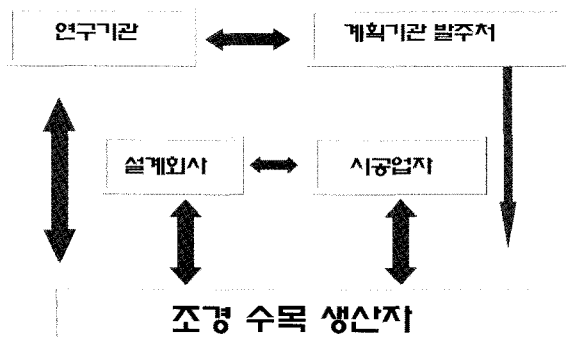
경제성장에 따라 조경수목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학교 및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함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민소득 증대 및 산업화에 따르기 위한 조경수목의 수요가 급증하는 량을 자생

수종 중에서 유망한 조경 수종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생수종개발로 외국으로부터 종자와 묘목 수입억제로 수입량을 대체 하여야 하며 새로운 품종으로 수출품목을 육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반면 온난화 현상으로 환경정화를 위한 조경 수종 발굴과 신품종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3. 설계에 따른 정보

조경수 설계는 관목과 교목으로 구분되어 설계를 발주한다. 이때 성목생산에 있어 조경 수목 생산자는 연구 기관, 계획발주처, 설계회사, 시공업자 등이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수종 생산량과 설계에 따른 수종에 따른 소비량을 감안하여 생산 비배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조경수 생산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경영규모의 영세화에 따른 소형목(관목류) 위주의 생산이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5~10ha 이상은 되어야 하나 현재 평균 1.5ha로 경영규모가 영세하다. 조경 수종 생산의 경우 많은 포지가 필요하나, 대부분 임대 포지를 사용하고 있어 장기수 재배에는 부담이 많다. 다양한 소형목의 소량생산으로는 급변하는 수요시장의 대응이 불가하다.

생산 수요 및 유통정보의 부재에 따른 비윤리적 생산으로 생산과 수요 및 유통예측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새로운 수종의 개발보다는 특정수종의 과잉생산과 품귀현상으로 인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조경수생산 임가와 시장 간의 생산, 기술, 가격, 소비동향 등에 대한 정보교환의 인프라 부족으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이용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생산자 보다 정보가 빠른 중간상인에게 시장 독점력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왔다.

- 자본 회수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한 자금의 투자욕이 저하 되고 있다.

조경수의 경우 파종 후 판매까지 평균 6년이 소요되어 운영자금의 압박으로 집약적인 생산 활동이 미약하다. 특히 임대기간이 5년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 연장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목을 생산하는데 손해를 크게 초래 한다.

그래서 고가의 대형목 위주 생산보다는 생산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목류 및 소형목 위주의 생산과 판매가 일반적이다.

- 소비의 대중화, 상품의 규격화, 시장가격의 표준화 부재와 소비확대 저해로 수요, 근원경, 흉고직경 등 크기 위주의 유통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양과 질의 조경수 생산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새로운 신상품개발을 기피하게 됨으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조달가격 개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상품 개발에 경제적 시간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 산지 유통센터 부족에 의한 직거래의 활성화가 미약하다.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매보장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직거래체계가 부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바이어 유입을 위한 대규모 표준화 물량이 확보된 상시, 전시, 판매장 부재 와 유통시장 간 장거리 자원이 동에 따른 품질저하 및 유통비용이 증가되어 비용절감을 위한 주산지의 유통 거점구축이 시급하다.

- 체계적인 생산기술교육 및 연구기관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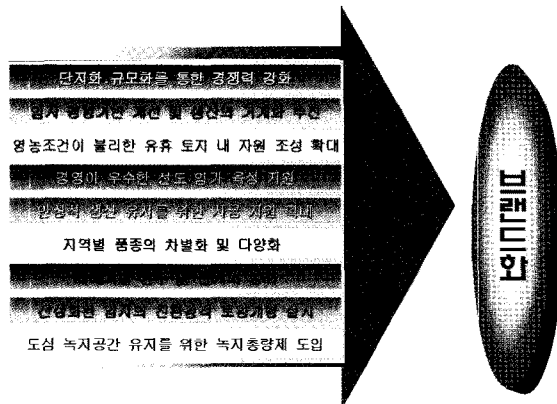
생산자의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부재 및 교육, 연구 담당기관이 부족하여 도시 주거 내 관상자원의 생육 적용이 다소 어렵고, 일반인은 재배기술이 부족하여 주거공간내의 실질적인 소비수요는 저조하다.

- 식물이라는 관상자원의 특성상 원활한 수출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토양에 관한 법제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5. 조경수 브랜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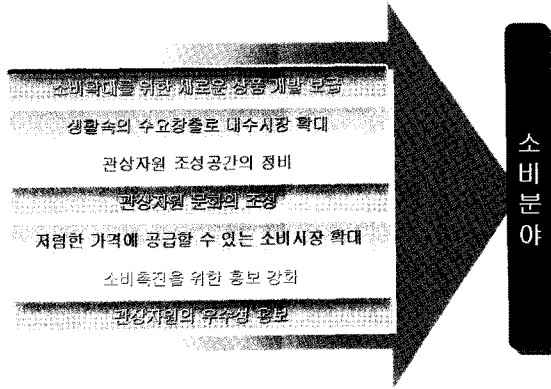
조경수 재배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위해서는 단지화, 규모화, 임지경영의 개선으로 유희 토지 내 자원 육성과 경영이 우수한 농가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조경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품종의 차별화와 수종이 다양하고 재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강화됨으로 친환경적 토양개량으로 도시 녹지 공간에 조경수와 기능성 있는 수종의 재배가 필요하다.



6. 조경수 문화와 소비

조경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개발과 우리 생활 속에서 조경수의 내수시장과 사람들에 눈높이에 맞추어 특히 어떤 수종을 택할 것인가, 수형(가로수)에 따른 아름다움 등을 생각하여 관상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문화와 어울려 조경수가 생산되어야 하며 조경수를 이용하여 관상자원으로 볼거리와 기능성으로 알맞은 수종을 선택하여 우수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무궁화 가로수거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남이섬)